

##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 자녀에 대한 신뢰 및 자기효능감이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 영 신<sup>†</sup>

인하대 교육학과

김 의 철

인하대 경영학부

이 연구는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과 자녀에 대한 신뢰 및 자기효능감이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였으며, 두 개의 가설이 검증되었다. 분석대상은 성인 857명(초등학생의 부 111명, 모 111명; 고등학생의 부 108명, 모 108명)이었고, 측정도구는 Bandura(1995)의 자기효능감 질문지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LISREL 분석 결과, 가설 1은 완전히 긍정되었으며, 가설 2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은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해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가정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다. 둘째,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해 간접효과가 있었다. 즉 배우자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자기효능감이 증진되며, 향상된 자기효능감은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를 높였다. 셋째, 자녀에 대한 신뢰는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신뢰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유의한 전체효과가 있었다. 즉 자녀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고, 향상된 자기효능감은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자녀에 대한 신뢰는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해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 이와같이 성인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규명하는 기초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주요어 : 가족, 생활만족도,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신뢰, 토착심리

---

<sup>†</sup> 교신저자 : 박영신,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E-mail : yspark@inha.ac.kr

한국 부모는 자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뜨겁게 쏟아 붓는 교육적 관심, 혈연관계에 토대한 철통같은 신뢰,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를 정도로 한없이 높은 기대 등으로 표상되는 부모자녀관계는, 단순히 자녀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이 자녀의 성취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부모 노후에 성공한 자녀가 노부모 부양을 잘 하는 효도 행동을 통해 보답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대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자녀가 잘되는 것 자체가 부모로서 만족스럽고 보람이고 행복인 측면이 있다.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관계적 자아개념의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이 개별적인 자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자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들(김지경, 김명소, 2003; 방희정, 윤진영, 김아영, 조혜자, 조숙자, 김현정, 2007; Kim & Park, 2006a)에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관계적 자아는 한국의 성인들이 부모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 자녀와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잘 드러나고 있다.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혈연으로 맺어진 자녀와의 관계에서 거의 자기의 분신과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관계적 자아를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성취를 통해 부모는 대리적 성취를 경험할 수 있고, 일생을 통해 순환되는 이러한 피드백은 한국에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인들의 끝없는 희생의 원천(Park, 2002)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자녀 개인 자체의 성취에 대한 관심보다는, 부모들이 자기 자신의 확대된 일부로 자녀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충족하지 못한 자아를 완성하려는 열망이 무의식적으로 범벅이 되어 자녀에 집착하

는 것인지도 모른다. 자녀를 독립된 자유로운 존재로 인정하기보다는 부모와 자녀 관계라는 사슬에 기왕이면 강하게 묶여 차라리 혼연일체로 엮이기를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섭섭해 하고, 부모 자신도 자유롭기를 원하지 않으며, 개별적 존재로서의 독립을 오히려 두려워하며, 관계를 느슨하게 하는 거리감을 원천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혈연이라는 뿔 수 없는 접착제로 연결되어 있는 자녀와의 관계(Park, Kim & Lee, 2004)와, 그러한 자녀의 존재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배우자와의 관계는, 한국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를 형성하는데 어떠한 작용을 하는 것일까? 자녀를 신뢰함으로써 오는 든든함은 성인들이 배우자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과 더불어 한국 성인들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각각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가정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족관계의 맥락 속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심리특성 변인은 무엇인가? 요약하면, 한국 성인들의 가정생활만족도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러한 핵심적인 요인들 간에 어떠한 역동적인 관계가 작용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서부터 이 연구는 출발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 부모들이 자녀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집착이 대단히 강렬하고, 성장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며, 자녀를 통해 대리적 성취감을 느끼는 경우를 일상생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여 일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가기 시작하면 한편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러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섭섭하고 멀어지는 거리감을 느끼기까지 한다.

그래서 품 안의 자식일 때가 행복하다고 하고, 자녀가 성장하면 빈 등지 증후군으로 공허감이 더 커지는지도 모른다. 자녀가 독립하면 부부간의 사회적 지원이 더 필요하고, 서로를 의지하게 하는 지팡이가 된다. 발달단계에 따라 가족관계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의 심리상태에도 변화가 있게 된다. 남순현과 한성열(2002)의 연구에 의하면, 성인 자녀가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될 때, 가족들의 정서와 가족관계의 질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발달에 따라 가족관계 역동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성인에게 만족한 가정생활이란 삶의 에너지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족한 가정생활이 삶의 행복과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실패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성인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실패경험을 질문하였을 때(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5), 가정생활에서의 문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였고, 이는 학업에서의 실패, 직업에서의 실패,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더욱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정생활의 문제로 지적된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을 보면 예컨대 부모님과의 갈등, 자녀교육문제, 배우자와의 갈등 등등 거의 대부분이 가족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가정생활에서의 만족을 위해 가족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 또한 성인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건(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으로 가정생활(29.9%)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이와 거의 비슷한 비율로 경

제적인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 외에 직업, 건강, 인간관계가 스트레스 사건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가정생활 스트레스의 내용으로 가족/부부관계(13.3%)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자녀교육(12.1%)이 거의 비슷한 비율이었으며, 이외에 친척관계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가정생활 스트레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배우자와의 관계와 자녀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만족한 가정생활이 삶의 목표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성인 응답자의 43.1%가 미래에 가장 성취하고 싶은 일로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반응율은 성공적인 직장생활(27.8%)이나 경제적인 안정(9.7%)이나 자아실현 및 사회봉사(6.9%)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이었다(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5). 뿐만 아니라 가정의 화목은 자아실현이나 사회봉사 등 다른 가치들보다 우선하여 성인들의 생활목표의 식으로 중요하게 인식(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성인의 삶에서 만족한 가정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를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성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 요소로 가정생활의 화목이 부각되었음(박영신, 김의철, 2006)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

그렇다면 성인에게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의 기반인 가정생활의 만족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성인의 가정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박영신, 김의철, 2006)에 의하면, 화목한 가족관계라는 응답이 42.4%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장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인 여유(27.3%)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가족관계가 화목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았다. 한편 화목한 가족관계, 경제적 여유 외에, 여가생활, 자기조절, 건강이 중요한 핵심 범주로 포함됨으로써, 성실하게 노력하고 인내하는 자기자신에 대한 통제의 마음도 삶의 질에 중요한 것으로 포함되었다.

가정생활에서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에 대한 자유반응을 통해 확인된 여섯 개의 핵심 요소 중에도 역시 가족 간의 갈등과 같은 인간관계 요인이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으며, 자기조절의 결여도 다섯 번째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의 가정생활에서 인간관계와 관련된 면과 자기 자신의 조절이라는 심리적인 특성에 관련된 측면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생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토착심리를 분석한 한기혜, 박영신과 김의철(2008)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관계가 원만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반응이 많았으며, 이 외에 개인적 성취, 가정의 화목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이 불화할 때 가장 불행하다는 반응율이 높았으며, 외로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불행을 느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족들 사이의 화목한 관계가 한국 사람들의 행복 인식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의철과 박영신(2006)은 삶의 질과 관련된 일련의 선행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대표적 요인들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논의한 바 있다. 첫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자원으로서 경제력, 둘째 원만한 인간관계의 중요성, 셋째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으로서 정서적 지원, 넷째 심리적 특성으로서 자기효능감

이나 자기조절과 같은 통제의 중요성, 다섯째 학업성취를 통한 높은 삶의 질에 대한 기대, 여섯째 신체적 건강과 기타 요인들이다.

이 연구에서는 김의철과 박영신(2006)의 논의에 토대하여 한국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서,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과 자녀에 대한 신뢰와 같은 인간관계에 관련된 변인 및,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 변인들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한국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지각이 인간관계와 얼마나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한 논의(박영신, 2007)를 토대로, 경험과학적 자료를 통한 검증이 있었다. 예컨대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친구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이 유아의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장우귀, 김의철, 박영신, 2008b),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간관계와 생활만족도 또는 삶의 질의 관련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성인들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핵심적인 인간관계 변인이, 배우자와의 관계 및 자녀와의 관계라는 점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인의 인간관계 중에서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은 여러 주제의 연구들에서 확인되어 왔다. 물론 연구들마다 구체적인 측정문항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 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인 관계에서 받는 지원이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규명(House, Landis, & Umberson, 1988)이 있어 왔다. 또한 가정생활만족도만이 아니라 직업에서 만족도가 사회적 지원과 어떠한 관련이 있

능가에 대해서도 연구되어졌다. 예컨대 학교장의 사회적 지원은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였는데, 초등교사(박은실, 김의철, 박영신, 2007)나 중등교사(Hur, Kim & Park, 2008)에서 모두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김의철과 박영신(2001)이 성인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은 생활만족도와 높은 정적 상관( $r=.51$ )이 있었다. 또한 부부관계 효능감( $r=.62$ ) 및 자녀관계 효능감( $r=.59$ )과 성인의 생활만족도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외에도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의철, 홍천수, 이정권, 박영신, 2005)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사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지원은 건강한 삶을 위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성인들의 경우에 배우자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은 신체기능 및 정서적 효능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실제로 환자의 질병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Taylor, Bandura, Ewart, Miller & DeBusk, 1985)되었다.

인간관계에서의 신뢰 정도는 관계에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예컨대 환자들 경우에 의사에 대한 신뢰 정도는 치료와 관련된 심리적인 만족도만이 아니라 실제로 질병의 치료효과까지 높이는 것으로(김의철, 홍천수, 이정권, 박영신, 2005)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한국 성인의 자녀와의 관계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신뢰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고자 한다. 한국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신뢰의식을 토착심리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김의철, 박영신, 2004)에 의하면, 성실함, 정직함, 혈연관계, 자녀에 대한 기대와 대

화, 순종함, 학업에 대한 충실과 같은 범주들이 가장 대표적인 개념으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가 성실 정직하고 부모에 대해 순종하며 학업에 충실할 때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건강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신체적인 건강에 얼마나 영향력 있는 변인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과학적 연구결과들이 누적(박영신, 김의철 역, 2001; Bandura, 1997)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표집대상에서 검증되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임미향, 박영신, 김의철, 2005) 하였을 때, 삶의 질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관계효능감의 설명변량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투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이 검증되었다. 중등교사들의 직무만족도는 직무성취도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자기효능감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Hur, Kim & Park, 2008). 즉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에서의 효능감이나, 전반적인 일들에서 자기조절과 관련된 효능감 및 사회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교직 전문성이나 인간관계와 관련된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변인임을 밝혀 준다.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나타내는 심리적인 역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대상을 중심으로 검증해 왔다.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와 민병기(1999)가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 형성요

인에 대해 구조적 관계 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박영신, 김의철과 민병기(2002)는 중학생의 생활만족도가 아버지의 사회적 지원 및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어떠한 역동을 갖는지를,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도 별도로 구조적 관계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은 생활만족도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으며, 동시에 사회적 지원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력도 확인되었다.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종단적으로 추적한 결과(임미향, 박영신, 김의철, 2008)는 모든 발달단계에서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성인의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의 관계를 중다회귀분석한 결과(장우귀, 김의철, 박영신, 2008a)에 의하면, 성인의 삶의 질은 특별히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에 의한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어려움극복효능감이 두 번째로 설명변량이 높았다. 이러한 기본적인 모형은 다양한 표집대상과 다양한 하위변인들을 활용하여 누적적으로 검증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검증되어온 기본적인 모형을 토대로 하여, 보다 구체적인 맥락에서 보다 구체적인 하위변인들간의 역동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즉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으며 그 상대적인 영향력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심리학에서 토착심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에 대한 논의(Kim & Park, 2004; Kim, Yang & Hwang, 2006)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한국인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서양 주도의 일반심리학 틀 속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조공호, 2003)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 심리의 다양한 개념들(최상진, 2000; Choi, Han & Kim, 2007)에 대한 새로운 탐구가 있어왔다. 최근에는 한국인 심리의 특징과 역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 토착심리를 경험과학적으로 검증한 결과들도(Kim & Park, 2006b; Park, 2008) 누적되고 있다.

한국인의 삶의 질에 관련된 토착심리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의 중요성은 선행연구들(김의철, 박영신, 2006)에서 지적되어 왔다. 또한 환자들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한국인의 건강 행동 이해를 위한 토착모형의 개발과정에서 문화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것으로 지적(김의철, 홍천수, 이정권, 박영신, 2005) 되었다. 이러한 문화적이고 관계적인 요인의 중요성은 학업성취(Kim & Park, 2008) 등 여러 맥락에서 논의되어 왔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 뿐만 아니라 신뢰가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7).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 신뢰의식의 토착심리에 관심을 갖는다.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2004)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부모자녀관계에서 신뢰 기반으로서 희생과 순종, 무조건적인 신뢰를 요구하는 혈연관계, 자녀 신뢰의 이유로 학업에 대한 충실과 능력보다 도덕성의 중요성,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 정서적 지원이 인간관계에서의 신뢰 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속에서 신뢰관계의 확대.

한국인의 토착적인 신뢰의식(박영신, 김의철, 2005)에 기반을 두고, 이 연구에서는 인간

관계 신뢰 중에서 특별히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 대한 신뢰 변인을 다루고자 한다. 한국인 부모자녀관계의 신뢰의식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들(김의철, 박영신, 2004; Lee, Kim & Park, 2005)에 기초하여, 양적 도구를 개발하고 또한 연구모형 내에서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배우자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자녀와의 관계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신뢰의식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인간관계 변인들이 성인의 심리적 특성으로서 자기효능감과 어떠한 관련을 갖고, 나아가서 가정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김의철과 박영신(2001)의 연구에서는 성인의 생활만

족도가 사회적 지원이나 자기효능감과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그쳤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누적해 온 결과들에 토대하여 보다 정교한 연구모형을 구축하여 변인들 사이의 인과적인 관계 패턴을 파악하고, 각 독립변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대한 효과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결과들에 토대하여 그림 1과 같은 경로모형이 연구모형으로 제안되었다. 이러한 연구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은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배우자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자기효능감이 증진되고,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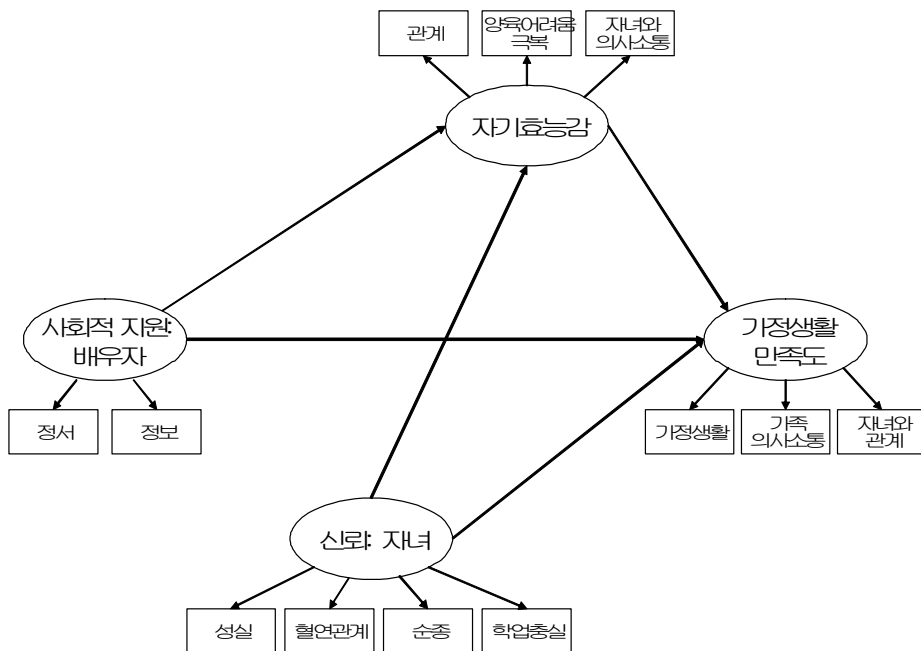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 자녀에 대한 신뢰, 자기효능감이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상된 자기효능감은 가정생활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가설 2]** 자녀에 대한 신뢰는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자녀에 대한 신뢰를 많이 할수록 자기효능감이 증진되고, 향상된 자기효능감은 가정생활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 방 법

### 분석대상

이 연구를 위한 표집대상은 남녀 초등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자녀로 둔 부모집단으로 하였다. 초등학교는 아동기 자녀임을, 고등학교는 청소년기 자녀임을 고려하여, 각각 그들의 부모를 성인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부모의 표집설계는 남학생 75명과 여학생 75명의 아버지 150명과 어머니 150명으로 하였다. 따라서 성인 총 30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나, 실제로 회수된 질문지는 남학생 57명과 여학생 56명의 부모로서 아버지 113명이고 어머니 113명이었다.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연구 자료로 부적합한 자료가 두 세트 제외되어 아버지 111명, 어머니 111명하여 총 222명의 자료가 최종분석대상으로 확정되었다.

고등학교 부모의 표집설계는 초등학교 부모와 마찬가지로 남학생 75명과 여학생 75명의 아버지 150명과 어머니 150명으로 하였다. 인문계 남녀 고등학교에서 각각 질문지를 실시한 결과, 남학생 55명과 여학생 65명의 아버지 120명과 어머니 120명의 질문지가 회수되

었다. 그 중에서 성실하게 응답하여 이 연구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아버지 108명, 어머니 108명의 질문지가 확정되었다.

최종 분석대상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초등학교의 부모집단 222명, 고등학교 부모집단 216명으로서, 총 439명이 분석대상이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부모집단과 고등학교 부모집단이 분석대상 수에서 거의 유사하였다.

표 1. 분석대상

	초 부모	고 부모	계
남	111	108	219
여	111	108	219
계	222	216	438

초등학교 부모집단 중에 아버지의 연령은 35세에서 48세로서 평균 41.50세이고, 어머니의 연령은 33세에서 47세로서 평균 38.61세였다. 고등학교 부모집단에서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5.33세(40~53세),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2.72세(38~51세)이었다. 따라서 고등학교 부모집단이 초등학교 부모집단보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평균적으로 약 4세가 더 많았다.

가정경제생활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응답에서 초등학교 부모의 경우는 상 9.5%, 중 77.4%, 하 13.1%이었고, 고등학교 부모는 상 9.3%, 중 77.5%, 하 13.2%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중류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약 77%로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초등학교 부모집단과 고등학교 부모집단의 가정경제생활 정도에 대한 반응분포는 거의 동일하였다.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부모 경우에 고졸(66.1%)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대졸(29.9%) 대학원졸(4.1%) 중졸(4.1%) 이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생 부모도 고졸(55.3%)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대졸(21.2%) 중졸(14.4%) 초등졸(4.8%) 대학원졸(4.3%)의 순서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고졸이 과반수가 훨씬 넘고, 고졸과 대졸이 주를 이루고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측정도구

이 연구를 위한 질문지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아버지용 질문지와 어머니용 질문지로 분류되었는데, 질문지 전체 안내문에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라는 표기를 하는 외에 실제 측정변인들과 문항은 모두 동일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부록 참고)의 변인구성과 신뢰도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김의철과 박영신(1999)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사회적 지원을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 재정적 지원으로 분류하여 처음으로 도구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을 때,  $\alpha = .87 \sim .93$ 의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그 이후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으며, 높은 신뢰도가 누적적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은 김의철과 박영신(1999)이 제작한 부모의 사회적 지원 질문지를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 질문지로 응용한 것이다.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은 2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었는데, 배우자로부터 얼마나 정서적이거나 정보적인 도움을 받는지에 대해 4점 척도(1점-전혀 아니다, 4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 신뢰도는 하위변인 별로  $\alpha = .92 \sim .94$ 로 매우 높은 값을 보였다.

표 2. 측정도구의 변인구성과 신뢰도

변인	하위변인	문항 예	문항번호	$\alpha$
배우자 사회적 지원	정서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준다	1 2 3 4 5 6	.94
	정보	도움이 되는 말을 해 준다	7 8 9 10 11 12	.92
자녀 신뢰	성실	우리 아이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 한다	1 5 9 13 17 21	.81
	혈연관계	같은 혈육인 자녀를 무조건 믿는다	2 6 10 14 18 22	.80
	순종	우리 아이는 부모를 믿고 잘 따라와 준다	3 7 11 15 19 23	.82
	학업충실	우리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	4 8 12 16 20 24	.82
자기효능감	관계	당신은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1 4 7 10 13 16	.80
	양육어려움극복	자녀로 인해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은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습니까?	2 5 8 11 14 17	.81
	자녀와 의사소통	자녀에게 당신의 생각을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습니까?	3 6 9 12 15 18	.83
가정생활 만족도	가정생활	가정생활	1	-
	가족간의 의사소통	가족간의 의사소통	2	-
	자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3	-

김의철과 박영신(2004)은 청소년과 부모의 인간관계를 통해 본 신뢰의식을 토착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한 바 있다. 질적 분석 결과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는 대표적인 이유로서 성실함, 정직함, 혈연관계, 자녀에 대한 기대와 대화, 순종함, 학업에 대한 충실과 같은 범주들이 부각되었다. 이 연구에서 자녀에 대한 신뢰는 4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었는데, 평소에 자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해 4점 척도(1점-전혀 아니다, 4점-매우 그렇다)에 응답하도록 답지를 구성하였다. 네 하위변인들의 신뢰도는  $a = .80 \sim .82$ 로서 모두 .80 이상의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

Bandura(1995)의 질문지와 Bandura(1997)의 이론에 토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성인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을 3개, 즉 관계 효능감, 양육어려움극복 효능감, 자녀와 의사소통 효능감으로 측정하였다. 답지는 평소에 어떤 일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1점-전혀 잘할 수 없다, 4점-매우 잘할 수 있다)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하위변인의 신뢰도는  $a = .80 \sim .83$ 으로서 모두 .80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가정생활만족도는 평소에 가정생활에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4점 척도(1 전혀 아니다, 4점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반적인 가정생활, 가족간의 의사소통, 자녀와의 관계를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전체 가정생활만족도의 신뢰도는  $a = .71$ 이었다.

이 외에 배경정보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성별, 연령, 직업, 교육정도 및, 현재 가정의 경제생활 정도를 질문하였다. 가정 경제생활정도는 상, 중, 하에서 한 곳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 실시 및 분석 방법

초등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표집하기 위해, 1개 초등학교 및 2개 인문고등학교(1개-남학교, 1개-여학교)를 선정하였다. 표집된 3개 학교는 학생들의 객관적인 학업성취도에 대한 평판에서 평균 정도에 해당된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사회경제적지위 및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적 여건도 평범하였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장 및 담임교사의 협조를 받아, 각 학교의 부모집단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질문지는 학생들을 통해 부모에게 전달되었으며, 질문지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성실한 반응을 위해 모든 응답자들에게 선물을 제공하였다. 질문지 실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 먼저 초등학생 부모 집단과 고등학생 부모집단 각각의 자료를 기초로 연구모형을 검증하여, 두 집단 사이에 패턴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와 대학교 입학시험을 앞둔 한국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상황과 역할에 많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각 부모집단을 별도로 분석하여, 이 연구에서 검증하려는 가설과 관련된 변인들이 작용하는 패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만약 각각의 두 자료에서 다른 패턴이 확인될 경우는 한국 사회에서 초등학생 부모와 고등학생 부모가 갖는 심리적으로 독특한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와 달리 만약 각각의 두 자료에서 같은 패턴이 확인될 경우는 초등학생 부모와 고등학생 부모 여부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는 뜻이므로, 이 두 집단의 자료를 합하여 성인 전체 자료로 연구모형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여기에서 밝혀지는 결과는 청소년 자녀를 둔 성인 부모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가설검증을 통해 일반화된 결론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의 자료를 각각 분석하기 전에 각 집단 내에서 아버지 집단과 어머니 집단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인들과 관련하여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게 나타난다면, 성별 집단에 따라 별도의 분석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면, 성별 변인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 없이 부모집단의 자료를 합쳐서 함께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일단 초등학교 부모집단 자료 내에서 성별 각 변인들의 차이를  $t$ -검증하였다. 물론 고등학교 부모집단 자료 내에서도 성별 차이를  $t$ -검증하였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부모집단 자료 각각을 갖고 상관관계분석을 하였으며, 추출된 상관계수를 기초로 LISREL 분석을 하였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부모집단 전체 자료를 합하여 LISREL 분석을 한 뒤에, 결과에 대한 효과분석을 시도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를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가정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 결 과

### 성별 차이에 대한 검토

초등학교 부모집단의 자료와 고등학교 부모

집단의 자료를 분석하기 이전에, 각각의 집단 내에서 성별 차이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성별에 따라서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이나 자녀의 신뢰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성인 남자인 경우는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을 질문했을 때 아내의 사회적 지원 정도에 대해 응답할 것이고, 자녀에 대한 신뢰에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응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인 여자의 경우는 배우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질문했을 때 남편의 사회적 지원 정도에 대해 응답할 것이고, 자녀에 대한 신뢰에서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응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면, 초등학교 부모집단의 자료와 고등학교 부모집단의 자료를 분석할 때,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 각각별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시사된다. 그러나 만약에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면, 구태여 성별 집단을 구분할 필요없이, 초등학교 부모집단의 자료와 고등학교 부모집단의 자료만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먼저 초등학교 부모집단의 자료를 갖고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에 대해 성별 차이를  $t$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에서  $t$  값은  $p > .05$ 로서 의미있는 차이가 전혀 없었다: 배우자 사회적 지원(정서  $t = .93, p = .352$ ; 정보  $t = .07, p = .946$ ), 자녀 신뢰(성실함  $t = -.38, p = .708$ ; 혈연관계  $t = .50, p = .615$ ; 순종함  $t = .26, p = .798$ ; 학업충실  $t = .05, p = .960$ ), 자기효능감(관계  $t = 1.33, p = .186$ ; 양육어려움극복  $t = 1.47, p = .143$ ), 자녀의사소통  $t = 1.03, p = .306$ ), 가정생활만족도(가정생활  $t = .29, p = .773$ ; 가족간의 의사소통  $t = 1.05, p = .294$ ; 자녀와 관계  $t = 1.29,$

$p=.200$ )

한편 고등학생 부모집단의 자료로 성별 차이 검증한 결과도, 초등학생 부모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즉 연구모형에 포함된 모든 측정변인들에서  $t$ 값이  $p>.05$ 로 전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배우자 사회적 지원 (정서  $t=1.22, p=.224$ ; 정보  $t=.96, p=.337$ ), 자녀 신뢰(성실함  $t=-.68, p=.497$ ; 혈연관계  $t=-.63, p=.528$ ; 순종함  $t=-.74, p=.458$ ; 학업충실  $t=-.91, p=.365$ ), 자기효능감(관계  $t=.69, p=.490$ ; 양육어려움극복  $t=.74, p=.463$ ; 자녀의 사소통  $t=-1.19, p=.237$ ), 가정생활만족도(가정생활  $t=1.54, p=.126$ ; 가족간의 의사소통  $t=.08, p=.935$ ; 자녀와 관계  $t=-.65, p=.514$ ).

이와 같이 성별에 따라 측정변인에서 전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단계의 분석인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의 부모집단 각각의 자료 분석에서 성별 자료를 합해 분석하였다.

초등학생 부모집단의 자료 분석

초등학생 부모집단의 자료를 LISREL 분석하기 앞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변인들과 가정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보면,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 중에서 정서적 지원이  $r=.59$ 로 가장 높은 정적 관계를 보였고, 정보적 지원도 거의 유사하게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 특히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자녀에 대한 신뢰는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 만큼 가정생활만족도의 높은 상관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녀가 성실하고 순종하며 학업에 충실함으로써 자녀에 대해 신뢰의 정도가 높을수록 가정생활에서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가정생활만족도의 상관은  $r=.49\sim.53$ 으로서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과 가정

표 3. 배우자 사회적 지원, 자녀 신뢰, 자기효능감과 가정생활만족도의 상관: 초등학생 부모집단

변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배우자 사회적 지원: 정서	1.00								
② 정보	.79***	1.00							
③ 자녀 신뢰: 성실	.15*	.17*	1.00						
④ 혈연관계	.01	.06	.39***	1.00					
⑤ 순종	.15*	.19**	.51***	.52***	1.00				
⑥ 학업충실	.10	.14*	.77***	.43***	.65***	1.00			
⑦ 자기효능감: 관계	.24***	.33***	.22***	.21**	.22***	.22***	1.00		
⑧ 양육어려움극복	.30***	.40***	.27***	.30***	.36***	.26***	.73***	1.00	
⑨ 자녀와 의사소통	.21**	.27***	.27***	.30***	.36***	.27***	.74***	.83***	1.00
⑩가정생활만족도	.59***	.55***	.24***	.11	.24***	.22***	.49***	.53***	.50***

\*  $p<.05$ , \*\*  $p<.01$ ,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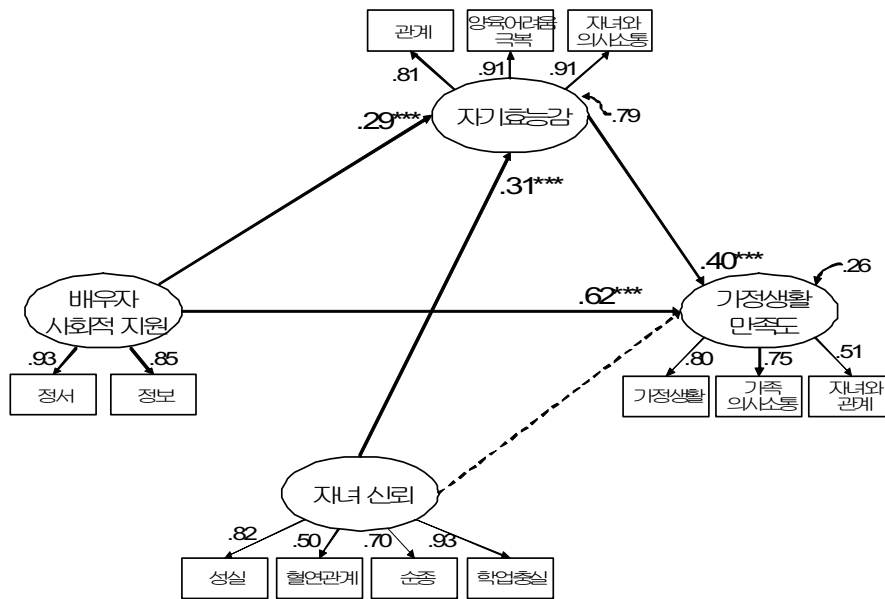


그림 2. 자료검증 1: 초등학생 부모집단의 가정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의 상관정도에 근접할 정도로 높은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자녀양육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효능감, 자녀와 의사소통하는 효능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다양한 인간관계에서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는 표 3의 상관계수를 토대로 하여 초등학생 부모집단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LISREL 분석의 결과이다. 모형적합도는  $GFI = .91$ 로서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각 잠재변인들을 연결하는 경로계수 값들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이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해  $P = .62$ 로 매우 높은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에서 자기효능감으로, 또한 자기효능감에서 가정생활만족도로 경로계수가 각각  $P = .29$ ,  $.40$ 으로 정적인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초등학교 부모의 경우

에 배우자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이 가정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력도 매우 높게 나타났으므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이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도 정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냄으로써,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은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나아가서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은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영향도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한편 자녀에 대한 신뢰에서 가정생활만족도로 직접 연결되는 경로계수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신뢰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신뢰

는 자기효능감에 대해  $P=.31$ 의 정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가정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력이 있다.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증진되고, 높아진 자기효능감은 가정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자녀에 대한 신뢰가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도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가정생활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고등학생 부모집단의 자료분석

고등학생 부모집단만을 대상으로 측정변인들간의 상호상관을 정리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가정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은  $r=.57\sim.60$ 으로서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계수보다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배우자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을수록 가정생활

에서 만족하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자녀 신뢰와 가정생활만족도의 상관은  $r=.29\sim.41$ 로서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이나 자기효능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나, 그래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가정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자기효능감과 가정생활만족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는  $r=.49\sim.51$ 로서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이 높은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을수록 가정생활에서 만족하는 정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그림 3은 연구모형인 그림 1을 고등학생 부모집단의 data로 검증한 결과이다. 모형적합도는  $GFI=.90$ 으로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Lisrel검증 결과, 비록 경로계수 값들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전반적인 패턴은 그림 2와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즉 그림 1에서 가정된 이론변인들간의 경로들 중에서, 자녀 신뢰에서 가정생활만족도로 가는 경로만 제외

표 4. 배우자 사회적 지원, 자녀 신뢰, 자기효능감과 가정생활만족도의 상관: 고등학생 부모집단

변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배우자 사회적 지원: 정서	1.00								
② 정보	.71***	1.00							
③ 자녀 신뢰: 성실	.29***	.35***	1.00						
④ 혈연관계	.29***	.25***	.32***	1.00					
⑤ 순종	.46***	.49***	.61***	.58***	1.00				
⑥ 학업충실	.23***	.22***	.72***	.35***	.54***	1.00			
⑦ 자기효능감: 관계	.48***	.52***	.26***	.31***	.37***	.15*	1.00		
⑧ 양육어려움극복	.46***	.45***	.35***	.28***	.45***	.26***	.73***	1.00	
⑨ 자녀와 의사소통	.53***	.52***	.39***	.34***	.48***	.32***	.71***	.77***	1.00
⑩ 가정생활만족도	.57***	.60***	.30***	.29***	.41***	.22**	.51***	.49***	.51***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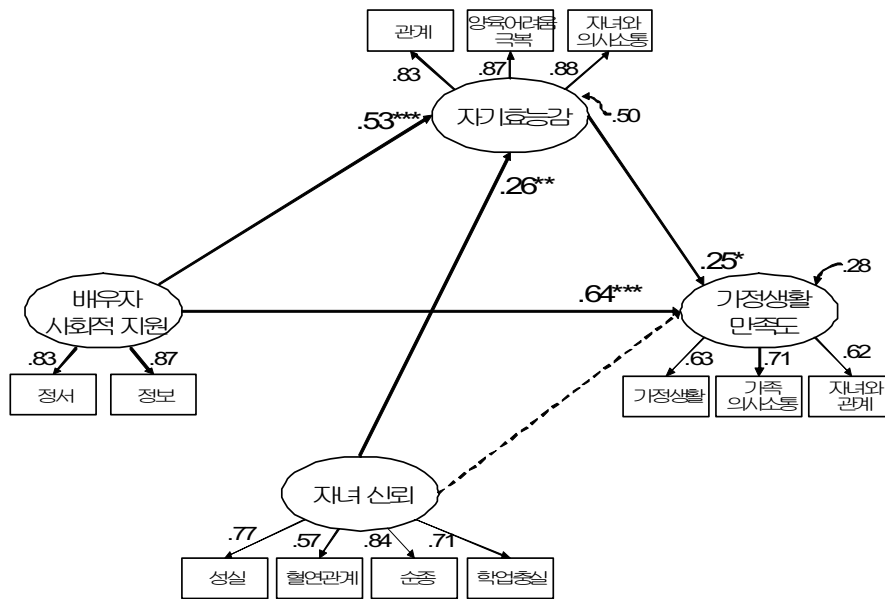


그림 3. 자료검증 2; 고등학생 부모집단의 가정생활만족도

하고는 모두 유의하였다.

배우자 사회적 지원에서 가정생활만족도로 향하는 경로계수가  $P=.64$ 로 매우 높았으며,  $p<.001$  수준에서 매우 의미있는 유의도를 보였다. 또한 배우자 사회적 지원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P=.53$ 으로서  $p<.001$  수준의 매우 높은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자녀 신뢰에서 자기효능감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비록 배우자 사회적 지원에서 자기효능감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만큼 높은 값은 아니었으나, 역시 정적인 값( $P=.26, p<.01$ )을 보였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에서 가정생활만족도로 연결되는 경로계수도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P=.25, p<.05$ ).

따라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는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높아진 자기효

능감은 가정생활만족도를 더욱 높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자녀에 대한 신뢰가 가정생활만족도를 직접 증진시키지는 않았으나, 자녀 신뢰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높아진 자기효능감이 가정생활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자녀 신뢰는 가정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가설 검증: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정생활만족도와 관련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초등학생 부모집단(표 3 참고)과 고등학생 부모집단(표 4 참고) 각각 분석했을 때, 변인들간의 관계 패턴이 거의 유사하였다. 물론 구체적인 상관계수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거의 흡사하였다. 가정생활만족도가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과 가장 높은 정적인 관

표 5. 성인의 배우자 사회적 지원, 자녀 신뢰, 자기효능감과 가정생활만족도의 상관

변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배우자 사회적 지원: 정서	1.00								
② 정보	.76***	1.00							
③ 자녀 신뢰: 성실	.22***	.27***	1.00						
④ 혈연관계	.15**	.15**	.35***	1.00					
⑤ 순종	.31***	.34***	.56***	.55***	1.00				
⑥ 학업충실	.17***	.18***	.74***	.38***	.58***	1.00			
⑦ 자기효능감: 관계	.36***	.42***	.25***	.26***	.30***	.18***	1.00		
⑧ 양육어려움극복	.38***	.43***	.32***	.29***	.40***	.26***	.73***	1.00	
⑨ 자녀와 의사소통	.37***	.39***	.34***	.32***	.43***	.30***	.73***	.80***	1.00
⑩ 가정생활만족도	.58***	.57***	.27***	.20***	.34***	.22***	.50***	.51***	.50***

\*\* $p < .01$ , \*\*\* $p < .001$

계를 보이고, 그 다음으로 자기효능감, 자녀에 대한 신뢰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일차된다.

이러한 결과들을 검토해 볼 때, 구태여 상관관계를 초등학생 부모와 고등학생 부모로 분류하여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초등학생 부모와 고등학생 부모의 자료를 통합하여 성인 전체 자료의 상호상관을 검토하는 것에 전혀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5는 전체 성인 집단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배우자 사회적 지원, 자녀 신뢰, 자기효능감과 가정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3과 표 4를 통해 예측되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과 가정생활만족도의 상관계수는  $r = .57 \sim .58$ 로서 매우 높은 값을 보였다. 자녀 신뢰와 가정생활만족도의 관계는  $r = .20 \sim .34$ 로서 다른 변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계수를 보였지만, 역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나타냈다. 자기효능감과 가정생활만족도는  $r = .50 \sim .51$ 로서 .50 이상의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녀를 신뢰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은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관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LISREL 분석 결과도 초등학생 부모집단(그림 2 참고)과 고등학생 부모집단(그림 3 참고)을 각각 분석하였을 때, 거의 유사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구태여 초등학생 부모 자료와 고등학생 부모 자료를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없고, 이 두 자료를 합하여 전체 자료로 상관관계 분석한 것을 토대로 LISREL 분석을 하였다. 그림 4에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모형적합도를 검토한 결과는 GFI가 .93으로 양호하였다.



[가설 1] 검증

그림 4를 보면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해  $P=.60$ 으로서  $p<.001$  수준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았다. 또한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은 자기효능감에 대해( $P=.42$ ,  $p<.001$ ), 자기효능감은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해( $P=.34$ ,  $p<.001$ )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표 6은 그림 4에 제시된 경로계수들의 영향

력을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6을 보면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전체효과가 .74 ( $p<.001$ )로 가장 높았는데, 그 중에서 직접효과가 .60이고,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가 .14로 포함되었다. 그리고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이 자기효능감에 대한 전체효과는 .42 ( $p<.001$ ), 자기효능감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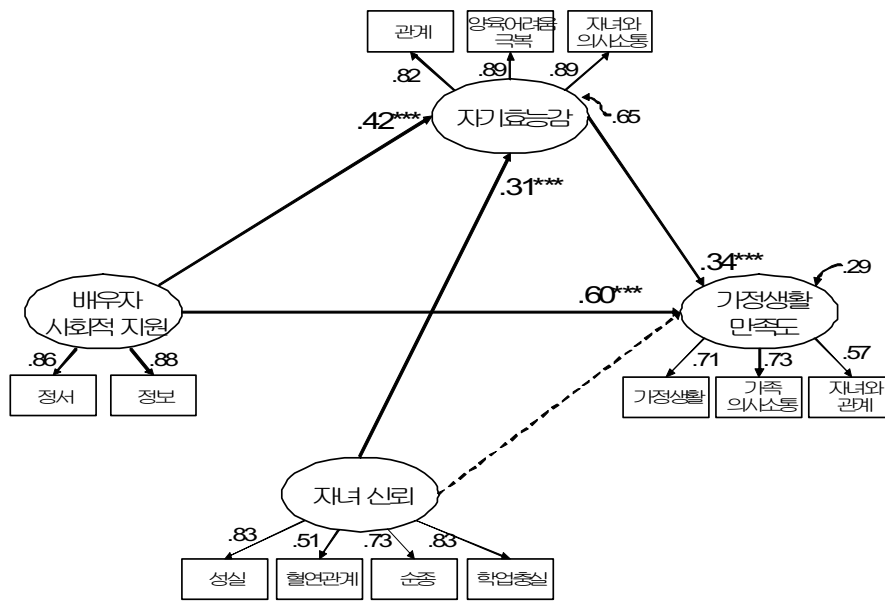


그림 4. 최종 검증모형: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 형성

표 6.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 효과분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배우자 사회적 지원 → 자기효능감	.42***	-	.42***
→ 가정생활만족도	.60***	.14***	.74***
자녀신뢰 → 자기효능감	.31***	-	.31***
→ 가정생활만족도	.03	.11***	.13*
자기효능감 → 가정생활만족도	.34***	-	.34***

\* $p<.05$ , \*\*\* $p<.001$

한 전체효과는 .34( $p < .001$ )였다.

그림 4와 표 6의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은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배우자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현저하게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향상된 자기효능감은 가정생활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중개적 역할은 배우자 사회적 지원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해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1은 완전히 검증되었다.

#### [가설 2] 검증:

그림 4에서 자녀에 대한 신뢰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그러나 자녀에 대한 신뢰가 자기효능감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P = .31, p < .001$ ), 자기효능감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 $P = .34, p < .001$ ) 하였다. 결과적으로 자기효능감은 가정생활만족도를 매개하는 의미 있는 변인으로 부각되었다.

표 6을 보면 자녀 신뢰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13( $p < .05$ )으로서 비록 효과의 강도가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만큼 크지는 않았으나, 의미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록 자녀 신뢰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해 직접효과에서는 의미가 없었으나( $p > .05$ )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가 .11( $p < .001$ )로 의미 있게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자녀 신뢰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전체효과(.31,  $p < .001$ ), 자

기효능감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전체효과(.34,  $p < .001$ )는 모두 높은 정적인 값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설 2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즉, 자녀에 대한 신뢰는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은 부정이 되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신뢰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가정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은 긍정되었다. 비록 자녀에 대한 신뢰가 가정생활만족도를 직접 높이지는 못해도, 자녀에 대한 신뢰를 많이 할수록 자기효능감이 증진되고, 향상된 자기효능감이 가정생활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자녀에 대한 신뢰가 전체적으로는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변인으로 포함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표집 대상으로서 성인은 자녀를 둔 부모로 제한되었다. 그런데 자녀를 둔 부모도 자녀의 연령 범위가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너무 넓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신뢰를 측정함에 있어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오차변량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자녀를 둔 부모를 초등학생 자녀의 부모와 고등학생 자녀의 부모 두 집단으로 조작적인 정의를 하고 표집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 성인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로서의 성인에 적용되는

결과로 제한된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성인, 결혼을 했어도 자녀가 없는 성인, 이혼을 하여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성인, 사별을 하여 배우자가 없는 성인 등, 여러 환경에 처한 성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를 일반적인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결과의 적용 및 관련된 논의는 한국 성인 중에 배우자가 있고 청소년 자녀를 둔 경우로 국한된다. 또한 청소년 자녀 중에서도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춘기 초기의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인 성인들의 심리적 역동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은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들의 구인타당도는 앞으로 후속연구들을 통해 누적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가정생활만족도를 3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러한 측정도구가 얼마나 내용타당도를 갖는지 등에 대해 앞으로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러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에 토대하여 가설 검증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나아가서 이 연구결과로부터 자극받은 후속연구의 방향에 대해서도 몇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보기로 한다.

#### 가설의 검증과 관련된 논의

이 연구에서 가설 1은 완전히 긍정되었다. 즉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은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즉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이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매우 높았으며, 또한 배우자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자기효능감이 증진되어서 향상된 자기효능감은 가정생활만족도를 높였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은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인이었다.

한편 가설 2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자녀에 대한 신뢰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이 있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녀에 대해 신뢰를 많이 할수록 자기효능감이 증진되고, 향상된 자기효능감이 가정생활만족도를 높여서, 자녀에 대한 신뢰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전체효과라는 의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논의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의 가설검증을 통해 밝혀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이러한 두 변인간의 관계에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의 기본적인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 결과들(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활만족도 형성과정에서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에 대한 기본 가정이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단 선행연구(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에서는 청소년 자녀를 표집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초점을 두고 진행 하였다면, 이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을 중심으로 성인의 자기효능감과의 맥락 속에서 생활만족도와 의 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점이 다르다. 다른 발달적 단계의 대상을 표집하여, 다른 구인들로 구성된 변인들을 측정하였을 때에도 기본적인 잠재변인들간의 관계가 일관된 맥락에서 검증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가정되어온 연구 모형의 기본 틀을 확증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배우자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이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인이라는 사실이 가장 크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결론은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이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 $P=.60$ , 그림 4 참고)가 가장 크고, 전체효과(.74, 표 6 참고)의 값이 특히 높다는 사실에 토대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들 경우에 의미 있는 인간 관계인 배우자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이 가정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에 부모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인은 배우자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이 가정생활만족도를 결정하였다. 아동기나 청소년기에는 부모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이 중요한 것처럼, 성인기에는 배우자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이 생활만족도 결정에 핵심변인으로 부각됨으로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주위의 의미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원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라

는 사실은, 한국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부모자녀관계의 역동보다는 부부관계에 의해 더욱 큰 영향을 받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74인데, 자녀에 대한 신뢰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13으로서(표 6 참고), 상대적으로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이 훨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 초등학교생이나 고등학교생 부모들의 부모세대 즉 70대나 80대 노년층이 과거 성인기에 부모역할을 수행했을 때는, 부부관계보다는 부모자녀관계가 가정생활의 핵심 화두였고 근본적인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그 결과 나타나는 자녀의 성취에 의해 가정생활에서의 보람과 만족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40대 성인 세대들의 가정생활에서는 자녀만이 구심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부관계가 훨씬 비중 있게 드러나는 변화가 점차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한(2000)도 현재까지는 한국 문화가 전형적인 집단주의 문화의 성향을 갖고 있지만, 한국인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은 이미 개인주의 성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자녀가치에 대한 인식에서도 한국의 성인 세대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사실과도 관련된 맥락으로 보인다. Kim, Park, Kwon과 Koo(2005)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머니 세대집단별로 자녀가치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자녀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서, 유아 어머니가 청소년 어머니보다 개인적인 제약(문항 예: 남편과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과 외부적인 제약(문항 예: 남편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을 더 많이 지적

하였다. 물론 자녀를 원하는 이유에서도 세대 차이가 나타났는데, 청소년 어머니가 유아 어머니보다 자녀의 사회적 가치(문화 예: 늙었을 때 자녀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와 관계적 가치(문화 예: 자녀가 있으면 늙었을 때 외롭지 않기 때문이다)에 대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 세대집단별로 자녀 가치에 대한 이러한 차이는 한국 사회에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로, 생활만족도가 자기효능적 신념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과 가정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간접효과를 추가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신뢰와 가정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역할을 하였다. 자녀에 대한 신뢰 경우는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해 직접효과가 없고 오로지 자기효능감을 통해서만 간접효과를 갖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배우자가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 주었을 때 그것이 자기효능감을 증진 시킴으로써 가정생활만족도를 배가시키고,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신뢰의식은 자기효능감을 자극하여 가정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선행연구들(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에서 밝혀온 생활만족도 형성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에 대한 재확인이 가능하였다. Bandura(1997)는 인간 심리와 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는데, 이 연구의 결과는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 형성 과정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힘으로써 Bandura의 이론이 검

증되었다.

#### 후속연구의 방향

이 연구의 결과들에 토대한 몇 가지 후속연구의 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생활만족도만이 아니라 성인의 전반적인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보다 다양하게 포괄하는 연구로 확대하면 흥미로운 것이다. 여기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 변인으로서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과 자녀에 대한 신뢰라는 두 외생변인을 설정하고 이 두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이라는 심리특성 변인을 매개변인으로 포함하여 간접적인 효과를 검토하였다. 물론 이러한 변인들은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들이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가정생활만족도만이 아니라 한국 성인의 전반적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서 예컨대 사회경제적지위, 직업에서의 성취, 자녀의 성공 정도 등 보다 다양한 변인들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분석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성열(1995)은 삶의 질과 내재적 동기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였으며, 채선애와 한성열(2002)은 주관적 안녕감과 여가동기의 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 정태연(2001)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학생 자녀와 부모로 구성된 응답자들이 모두 한국 사회를 주관적 안녕감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한국 성인의 행복과 관련된 심리적인 역동에 대한 밑그림을 보다 폭넓게 그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그동안 아동이나 청소년 자녀의 시각

에서 부모에 대한 지각을 다루는 부모자녀관계 변인이 많이 다루어져 왔다. 물론 이러한 지각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부모의 시각에서 자녀에 대한 지각을 다루는 부모자녀관계에 대해서도 더불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부모자녀관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의 필요성과, 이러한 다양한 시각에 토대하여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시도가 요구된다. 부모 및 자녀, 양자의 시각에서 접근한 결과들을 통합함으로써 부모자녀관계를 다각도로 이해하고, 부모자녀관계가 미치는 심리적 행동적인 영향도 다차원적으로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자녀에 대한 신뢰는 부모의 시각에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을 다룬 것이다.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에 대한 신뢰라는 시각에서만 아니라 부모들의 자녀가치인식이라는 시각으로 확대해도 흥미로운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성인 세대집단별로 자녀에 대해 어떠한 가치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 성인들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토착적인 자녀가치인식은 무엇이고, 변화되고 있는 자녀가치인식은 무엇인지를 비교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별히 출산 육아와 같은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여성들이 어떠한 자녀가치를 내면화하고 있는지는, 출산율과 자녀양육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표집된 성인집단은 초등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집단이기 때문에, 청소년 자녀를 둔 성인 부모 입장에서의 부모자녀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신뢰라는 변인을 통해 접근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후속연구에서는 인간 삶의 발달과정에서 부모자녀관계의 내용과 질의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성인 중기 단계에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얼마나 성실하고 또 학업에 충실하는가 등의 이유들로 인해 자녀를 신뢰하는 정도가 부모자녀관계를 구성하는 의미 있는 변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여 결혼을 하여 독립하게 되는 성인 후기나, 직업에서의 은퇴 또는 배우자의 사별 등을 경험하게 되는 노년 초기나, 급속히 가속화되는 신체적인 노화과정을 경험하며 죽음을 앞두고 되는 노년 후기로 접어들면, 부모자녀관계의 내용과 기능에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예컨대 자녀에 대한 신뢰의 내용도 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게 된다. 자녀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는 학업에 얼마나 충실한가의 정도가 자녀에 대한 신뢰를 구성하는 중요한 하위변인이 되지만, 자녀가 학업을 마치고 점차 성장하게 되면 학업 충실은 자녀에 대한 신뢰를 구성하는 구인으로서 의미가 퇴색된다. 부모가 노년기에 이르면 오히려 자녀에 대한 신뢰라는 변인보다는 성인 자녀로부터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데 훨씬 중요한 비중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자녀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이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갖는 상대적 비중에서도 연령 발달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의 발달 정도와 더불어 성인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내용과 질 그리고 기능에 변화가 있음을 주목하고, 적절한 측정과 분석이 필요하다.

노부모의 입장에서 성인 자녀의 사회적 지원이라든가, 성인 자녀의 입장에서 노부모부양과 같은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가족가치가 변하는 사회적 흐름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생의 발달 전체로 확대하여 부모자녀관계 변인을 정교하게 다루어 나가면 흥미로운 발견들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넷째로, 효능적 신념은 삶의 질과 건강(김의철, 홍천수, 이정권, 박영신, 2005; Bandura, 1997)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으로서 직접효과를 나타내고, 또한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과 자녀에 대한 신뢰가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으로서 간접적인 효과를 갖는 의미 있는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이 부각되었다. 그동안 자기효능감의 매개변인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은 생활만족도(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와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스트레스(김의철, 박영신, 2001), 성취(김의철, 박영신, 2008;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일탈행동(박영신, 김의철, 2008;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2007) 등 다양한 심리 행동변인들과의 관계에서 검증되어 왔다. 국내외에서 누적되어온 연구 결과들에 기초하여 볼 때,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심리적 구인으로서 자기효능감 변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인간행동 변인을 탐구하는 연구에서,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효능적 신념을 하위변인으로 정교하게 측정하는 자기효능감 도구를 개발하여 계속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이 연구에서 자녀에 대한 신뢰를 구성하는 측정변인들로 성실, 혈연관계, 순종, 학업충실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하위변인들과 문항들은 한국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신뢰에 대한 토착심리를 분석한 결과(김의철, 박영신, 2004)에 토대하여 제작되었다. 앞으로 한국인의 다양한 심리와 행동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과정에서 이와 같이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규명한 기초연구 결과들(박영신, 김의철, 2004, 2005; Kim & Park, 2006b)을 기반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을 누적해 나가고, 나아가서 세계 문화 속에서 한국인의 심리를 비교하고 이해(김의철, 박영신, 2005)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방희정(2000)은 한국 사회에서 부모자녀관계의 특징적 현상들이 급변하는 포스터모던적 시대 상황 속에서도 비교적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은 어떤 측면이고, 변화하지 않고 있는 심리와 행동은 어떤 측면인지에 대한 보다 명료한 이해를 위해,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대한 기초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전념을 하고 배우자보다는 자녀중심의 가정문화에 익숙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로서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가 자녀의 학업충실이나 성실함 및 혈연관계의 확인을 통한 든든함과 신뢰보다는 배우자의 정서적이고 정보적인 지원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40대 한국 성인들의 가정생활만족도가 과거 전통적인 한국 부모들의 자녀중심에서 점차 부부중심으로 이동이 되고 있는 경향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한 번의 연구로 이러한 거대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단지 가능성이 보인다는 정도의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자녀가치에 대한 세대차 연구(Kim, Park, Kwon & Koo, 2005)에서도 청소년 엄마들이 보다 관계지향적이고 사회지향적인 자녀가치를 보였다면, 유아 엄마들은 보다 심리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차이가 있었다. 가정생활에서의 만족이 자녀보다는 배우자와의 관계로부터 더욱 영향을 받음으로써, 가족관계 영향력의 중심이동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결과의 누적을 통해 한국 사회 가족가치의 변동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 성인의 가정생활에서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 번의 연구결과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다양한 검증이 필요하다. 비록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보다 자녀에 대한 신뢰가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은 낮았으나, 여전히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묵과해서는 안된다.

이제 이 글을 맺으며, 한국 부모는 자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라는 이 글을 시작할 때 천진난만하게 던진 질문을 다시 상기해 보게 된다. 이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여전히 ‘아니요’가 맞을 것이다. 이 글은 한국 성인들의 가정생활만족도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러한 핵심적인 요인들 간에 어떠한 역동적인 관계가 작용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 도달된 종착역에서, 한국 성인에게 가족관계, 즉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는 쉽 없이 하루 10만 번 뛰

는 심장 펌프와 같다는 표지판을 보게 된 듯하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심장과 온몸을 연결하는 혈관처럼, 배우자로부터의 사회적 지원과 자녀에 대한 신뢰는 자기효능감을 통해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를 유발한다. 낮아진 자기효능감은 동맥경화된 탄력 잃은 부실한 혈관처럼 가정생활만족도를 점차 마비시켜 나갈 것이다. 건강하게 유연한 혈관처럼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는 인간관계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대재생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청소년과 성인 간의 세대 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81~204.
-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의철, 박영신 (2001). IMF시대 한국 학생과 성인의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77~105.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부모의 인간관계를 통해 본 신뢰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2), 103~137.
- 김의철, 홍천수, 이정권, 박영신 (2005).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원 및 질병관



- 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2), 143~181.
- 김의철, 박영신 (2005). Trust, relationship, and civil society in Scandinavia and East Asia: Psychological, social, and cultural analysis.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133~161.
- 김의철, 박영신 (2006).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5), 특집호, 1~28.
- 김의철, 박영신 (2008). 한국사회와 교육적 성취 (II):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 토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특집호, 63~109.
- 김지경, 김명소 (2003). 한국 남녀의 관계적 자아의 특성: 다원적 구성요인 탐색 및 타당성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41~59.
- 남순현, 한성열 (2002). 가족분화수준, 가족관계의 질 및 친밀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33~49.
- 박영신 (2007).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과 인간관계. 2007년도 한국교육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초청 심포지엄, 우리 학생들은 행복한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위한 학습환경 디자인, 85~125.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대강당.
- 박영신, 김의철 역 (2001).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교육 건강 운동 조직에서의 성취. 문화심리학 총서 3. pp.599~618. 서울: 교육과학사.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박영신, 김의철 (2004). 한국의 청소년 문화와 부모자녀관계: 토착심리 탐구. 문화심리학 총서 6.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5).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나타난 토착심리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21~55.
- 박영신, 김의철 (2006).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1), 161~195.
- 박영신, 김의철 (2007).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특성 이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신뢰. 대한내과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청소년 노년층의 진료향상을 위한 심포지엄' 1~31. 백범기념관 컨벤션홀.
- 박영신, 김의철 (2008). 한국사회와 교육적 성취 (III): 성취의 그늘, 한국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심리적 역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특집호, 223~253.
- 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IMF시대 이후 초, 중, 고, 대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05~135.
-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2007).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 형성과정에 대한 종단 분석: 심리적, 관계적, 그리고 사회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1), 1~41.
-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 초등학교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57~76.
-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중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6(2), 63~92.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중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37~59.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5). 청소년과 부모의 실패와 미래성취 의식을 통해 본 한국인의 성취관련 토착심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2), 73~108.
- 박은실, 김의철, 박영신 (2007). 초등학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직무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분석. 이화여대 교육과학연구소, 교육과학연구, 38(3), 29~52.
- 방희정 (2000). 한국 사회에서의 부모자녀관계 특성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41~65.
- 방희정, 윤진영, 김아영, 조혜자, 조숙자, 김현정 (2007). 한국 성인의 관계적 자기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3), 23~63.
- 이종한 (2000). 한국인의 대인관계의 심리사회적 특성: 집단주의적 성향과 개인주의적 성향으로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특집호, 201~219.
- 임미향, 박영신, 김의철 (2005). 초등학교생의 삶의 질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2005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9~210. 인하대 하이테크센터 강당.
- 임미향, 박영신, 김의철 (2008). 청년의 삶의 질과 학업성취에 대한 연구: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2008년도 국제학술대회: 게시발표 논문집, 서울대학교.
- 장우귀, 김의철, 박영신 (2008a). 성인의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 2008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일반심포지엄, 구두발표, 게시발표 논문집, 22~23. 육군사관학교.
- 장우귀, 김의철, 박영신 (2008b). 유아의 생활만족도 및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한국교육학회 2008년도 국제학술대회: 게시발표 논문집, 서울대학교.
- 정태연 (2001). 대학생 자녀와 그 부모가 평가한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2), 1~19.
- 조궁호 (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 서울: 남출판.
- 채선애, 한성열 (2002). 여가활동, 여가동기, 자기효능감 및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7~31.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한기혜, 박영신, 김의철 (2008). 대학생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토착심리분석. 한국심리학회 2008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일반심포지엄, 구두발표, 게시발표 논문집, 24~25. 육군사관학교.
- 한성열 (1995). 삶의 질과 내재적 동기의 실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95~111.
- Bandura, A. (1995). Multifaceted scale of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Psychology, Stanford University, USA.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Choi, S. C., Han, G., & Kim, C. W. (2007).

- Chapter 15. Analysis of cultural emotion: Understanding of indigenous psychology for universal implications. 318~342. Valsiner, J. & Rosa (Ed.), A. *The cambridge handbook of sociocultural psyc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use, J. S., Landis, K. R., & Umberson, D. (1988).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241, 540~545.
- Hur, H. S., Kim, U., & Park, Y. S. (2008).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occupational achievement and job satisfaction: Longitudinal analysis of middle school teachers enrolled in teacher training programs. Paper presented at the XXIX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p. 787. July 20-25, International Congress Centrum Berlin, Germany.
- Kim, U. & Park, Y. S. (2004). Indigenous psychologies. Spielberger, C. (Ed.). *Encyclopedia of applied psychology, vol 2*. 263~269. Oxford: Elsevier Academic Press.
- Kim, U., & Park, Y. S. (2006a).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achievement in relational cultures: The role of self, relational and collective efficacy. In F. Pajares & T. Urdan (Ed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267~285.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 Kim, U., & Park, Y. S. (2006b).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of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parents and 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1(4), 287~292.
- Kim, U. & Park, Y. S. (2008). Chapter 21. Cognitive, relational and social basis of academic achievement in Confucian cultures: Psychological, Indigenous, cultural perspectives. In R. Sorrentino & S. Yamaguchi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within and across Cultures*. 491~515. San Diego, CA: Elsevier/Academic Press.
- Kim, U., Park, Y. S., Kwon, Y., & Koo, J. (2005). Values of children,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ocial change in Korea: Indigenous, cultural, and psychological analysi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4(3), Special Issues, 338~354.
- Kim, U., Yang, K. S., & Hwang, K. K. (2006). *Indigenous and cultural psychology: Understanding people in context*. New York: Springer.
- Lee, S. M., Kim, U., & Park, Y. S. (2005). The basis of trust and distrust between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An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6th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p.86-87. April 2-5, Wellington, New Zealand.
- Park, Y. S. (2002).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ubjective well-being: Redefining human agency and meaning systems. Invited address at the 2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p. 101. July, 7-12. Singapore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Singapore.
- Park, Y. S. (2008). Parent-child relationship, academic achievement and quality of life: The role of self-regulation, social support, and efficacy beliefs in Korea. Invited keynote address at the XXIX International

- Congress of Psychology, p.168. July 20-25, International Congress Centrum Berlin, Germany.
- Park, Y. S., Kim, U., & Lee, S. M. (2004). The basis and evolution of trust in relational cultures: Psychological, indigenous, and cultural analysis. Invited paper presented at the 2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p.62. August 8-13, Beijing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Beijing, China.
- Taylor, C. B., Bandura, A., Ewart, C. K., Miller, N. H., & DeBusk, R. F. (1985). Exercise testing to enhance wives' confidence in their husbands' cardiac capabilities soon after clinically uncomplicated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merican Journal of Cardiology*, 55, 635~638.
- 논문투고일 : 2008. 10. 15  
1차 심사일 : 2008. 11. 05  
게재확정일 : 2008. 11. 20

**Factors influencing family life-satisfaction among Korean adults:  
With specific focus on social support from spouse,  
trust of children and self-efficacy**

**Youngshin Park**

Dept.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Uichol Kim**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ha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factors influencing family life-satisfaction, focusing specifically on the role of spousal social support, trust of children and self-efficacy. Based on previous studies, two hypotheses were generated. A total of 857 adults (111 fathers and 111 mothers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108 mothers and 108 fathers of high school students) completed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self-efficacy scales (Bandura, 1995) and social support and life-satisfaction scales developed by the present researchers. LISREL analyses fully supported Hypothesis 1 and partially supported Hypothesis 2. First, spousal social support had a direct and positive effect on family life-satisfaction. Second, self-efficacy had a mediating effect between spousal social support and family life-satisfaction. Those respondents who received higher social support from spouse had higher self-efficacy, who in turn had higher family life-satisfaction. Third, trust of children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family life-satisfaction. Fourth, trust of children had a direct and positive effect on self-efficacy, which in turn had a direct and positive effect on family life-satisfact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ose respondents who had higher trust of children, had higher self-efficacy, who in turn had higher family life-satisfaction. Self-efficacy plays an important mediating role in increasing Korean adults' family life-satisfaction. This study reveal the importance of indigenous psychology in unraveling the factors influencing family life-satisfaction among Korean adults.

*Key words : family, life-satisfaction, social support, self-efficacy, trust, indigenous psych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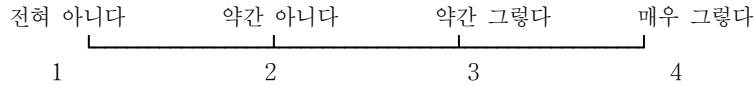
[ 부 록 ] 질문지

다음 문항은 한국 성인들께서 평소에 가정생활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함은 쓰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 질문지의 분석결과는 매우 귀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 ) 앞에 V 표 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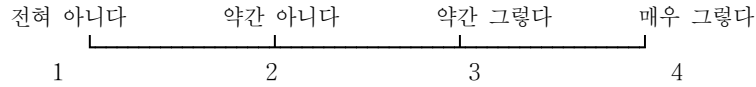
1. 성별 : ( ) 남 ( ) 여
2. 연령 : ( 만      세 )
3. 직업 : ( ) 없음/주부 ( ) 단순노동직 ( ) 기술직 ( ) 관리직 ( ) 전문직
4. 교육정도 : ( ) 초등졸 ( ) 중졸 ( ) 고졸 ( ) 대졸 ( ) 대학원졸
5. 현재 가정의 경제생활정도 : ( ) 하 ( ) 중 ( ) 상

아래 문항은 평소에 여러분이 자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평소 자녀에 대해 생각하는 대로, 해당하는 숫자를 각 문항 앞의 ( ) 안에 쓰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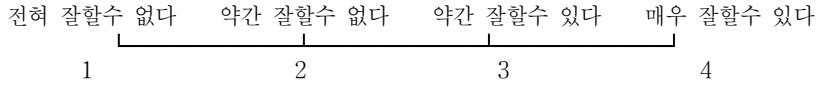
- ( ) 1. 우리 아이는 항상 성실하다.
- ( ) 2. 자녀와 나는 피로 맺어진 혈연관계이므로 의심이 없다.
- ( ) 3. 우리 아이는 부모에게 순종한다.
- ( ) 4. 우리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
- ( ) 5. 우리 아이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다.
- ( ) 6. 자녀와 나는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그냥 믿을 수 있다.
- ( ) 7. 우리 아이는 부모를 존경해서 시키는대로 한다.
- ( ) 8.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한다.
- ( ) 9. 우리 아이는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한다.
- ( ) 10. 내 자식인 우리 아이를 당연히 신뢰한다.
- ( ) 11. 우리 아이는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따른다.
- ( ) 12. 우리 아이는 학업에 충실하다.
- ( ) 13. 우리 아이는 책임감이 강하다.
- ( ) 14. 내가 낳은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
- ( ) 15. 우리 아이는 부모 말을 잘 듣고 착하다.
- ( ) 16. 우리 아이는 늘 열심히 노력한다.
- ( ) 17. 우리 아이는 열심히 노력한다.
- ( ) 18. 같은 혈육인 자녀를 무조건 믿는다.
- ( ) 19. 우리 아이는 부모가 바라는 것을 하려고 한다.
- ( ) 20. 우리 아이는 학교생활에 모범적이다.
- ( ) 21. 우리 아이는 평소에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한다.
- ( ) 22. 같은 핏줄로 이어진 자녀는 절대적이다.
- ( ) 23. 우리 아이는 부모를 믿고 잘 따라와 준다.
- ( ) 24. 우리 아이는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킨다.

아래 문항은 평소에 **배우자로부터 얼마나 정서적이거나 정보적인 도움을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해당하는 숫자를 각 문항 앞의 ( ) 안에 쓰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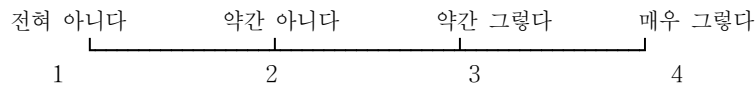
- |  |   |
|--|---|
| ( ) 1.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준다.<br>( ) 2.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준다.<br>( ) 3. 따뜻하게 대해 준다.<br>( ) 4. 고민을 들어 준다.<br>( ) 5.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준다.<br>( ) 6.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격려해 준다. | ( ) 7. 장래 문제에 대해 조언해 준다.<br>( ) 8. 도움이 되는 말을 해 준다.<br>( ) 9. 필요한 정보를 알려 준다.<br>( ) 10. 나의 잘못을 지적해 준다.<br>( ) 11. 올바른 방향과 결정에 대해 말해 준다.<br>( ) 12. 적절한 충고를 해 준다. |
|--|---|

아래 문항은 여러분이 **개인으로서 어떤 일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해당하는 숫자를 각 문항 앞의 ( ) 안에 쓰기 바랍니다.



- |   |  |
|---|--|
| ( ) 1. 당신은 친구들과 진실한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br>( ) 2. 자녀로 인해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은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습니까?<br>( ) 3. 자녀에게 당신의 생각을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습니까?<br>( ) 4. 당신은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br>( ) 5. 자녀가 당신의 기대수준에 도달하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계속 격려할 수 있습니까?<br>( ) 6. 자녀와 갈등이 있었을 때 대화를 통해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습니까?<br>( ) 7. 당신은 형제자매와의 우애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br>( ) 8. 자녀가 당신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얼마나 화내지 않고 지도할 수 있습니까?<br>( ) 9. 당신은 자녀와 얼마나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습니까?<br>( ) 10. 당신은 부모와 가까운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br>( ) 11. 자녀가 당신의 마음을 몰라주어도 당신은 얼마나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br>( ) 12. 서로의 주장이 달라도 당신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br>( ) 13. 당신은 친척들과 원만한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br>( ) 14. 자녀가 좌절할 때 당신은 얼마나 용기를 줄 수 있습니까?<br>( ) 15. 당신의 주장을 자녀가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br>( ) 16. 당신은 아랫사람들과 바람직한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br>( ) 17. 자녀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은 얼마나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br>( ) 18. 자녀가 당신의 의견을 얼마나 신중하게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습니까? |  |
|---|--|

아래 문항은 여러분이 평소에 **생활에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해당하는 숫자를 각 문항 앞의 ( ) 안에 쓰기 바랍니다.



- |             |                  |                |
|-------------|------------------|----------------|
| ( ) 1. 가정생활 | ( ) 2. 가족간의 의사소통 | ( ) 3. 자녀와의 관계 |
|-------------|------------------|----------------|